

대덕 소재화학 기업 한데 뭉친다

‘대덕밸리 소재화학 클러스터 협의회’ 결성

유니플라텍, 디오, NPC 등 대덕밸리내 소재화학 관련 기업들이 지난 10월 1일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대덕밸리 소재화학 클러스터 협의회’를 결성하고, 유니플라텍 강석환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협의회는 청정·기능·디스플레이 등 총 6개 소재 분과로 세분화되며, 각 분과위원장은 협의회 부회장직을 겸하게 된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 분과별로 10여 개의 회원사를 확보하여 60여 개 이상의 기업을 클러스터에 동참시킬 계획이다. 또한 분과별로 학·연·관 특별회원을 위촉,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 중심의 산·학·연·관 클러스터 활동을 벌여 나간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강석환 회장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클러스터를 결성했다”고 결성 이유를 밝히고, “정보 공유를 통한 비즈니스 연결, 전통 산업과의 연계, 원천기술 공동연구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첫번째 공식행사로 10월 20일 대덕컨벤션타운에서 ‘대덕밸리 선포 4주년 및 소재화학 클러스터 협의회 창립 기념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는 소재화학 클러스터의 모든 회원사를 비롯해 대덕밸리 소재화학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클러스터, 기술, 마케팅 등에 관한 다양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벌였다. 클러스터는 이 포럼을 시작으로 매월 1차례씩 분과별 모임과 분과위원장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



신제품 신기술

풍양정밀, 유로폼 자동 적재기 개발



대덕밸리 건설자재보수기기 전문 생산업체인 풍양정밀(대표 조성각)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로폼을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는 ‘유로폼 자동 적재기’를 개발, 출시했다. 이 장비는 유로폼을 자동으로 30단까지 적재해준 후 반자동 벤딩장치가 유로폼 더미를 묶어 안전한 작업을 가능케 해 작업 생산성이 3배 정도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적재기는 2종의 스틸 감지 센서와 기계 동작을 제어하는 스위치, 유로폼 더미를 밀어 올려주는 유압 실린더부, 유로폼 더미가 전후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막아주는 가이드 레일부, 제품 전체의 전기적 장치를 한곳에서 조작할 수 있는 콘트롤 박스부로 구성돼 있다.

회사측은 장비가 본격 출시되면 전국에 3000여 건설자재 임대업소와 1000여 중소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영업과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며, 11월부터 일본과 유럽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각 대표는 “이번 장비를 통해 산업재해에 노출돼 왔던 건설현장 근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기쁘다”면서 “자동 적재기 양산으로 회사 매출 신장률이 전년 대비 350%로 예상된다”고 말했다.